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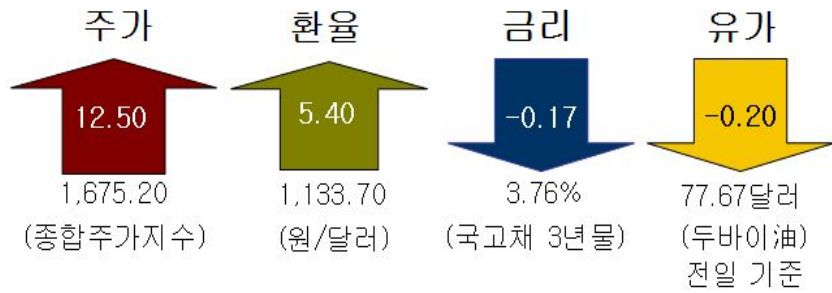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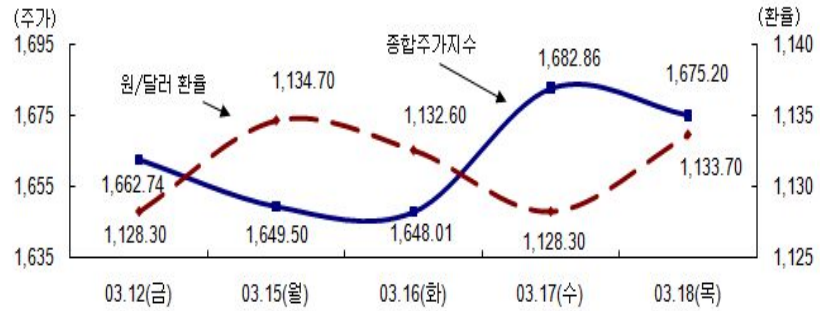
10-11(통권 391호)
2010.03.19



■ 남북한 인구 구조 특성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2~2.18)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남북한 인구구조 특성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 본부장 (2072-6210)
 □ 통일경제센터 : 이 해 정 선 임 연 구 원 (2072-6222, hj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남북한 인구 구조 특성

1. 남북한 인구의 세계 위상

최근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 총인구는 2008년 현재 7,191만 명으로 세계 18위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 인구는 2008년 현재 세계 25위이나, 남북한 인구 통합시 17위인 터키 7,681만 명의 다음으로 18위를 차지하게 된다. 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를 이은 6위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일본 1억 2,708만 명의 56.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남북한 인구 구조의 차이점

(남녀 인구별 성비는 남남북녀(南男北女)) 성비는 남한의 남초 현상과 북한의 여초 현상인 '남남북녀' 현상이 나타난다. 2008년 현재 남한의 남녀 성비가 100.9명이며, 북한의 남녀 성비는 97.2명이다. 남북한 인구를 통합하면 성비는 99.7명이 되어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연령별 인구 구조는 남로북청(南老北靑)) 남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고 북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로북청' 현상이 나타난다. 남한은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1.6%,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23.8%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67.6%, 고령 인구는 8.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진전 속도는 남급북완(南急北緩)) 남한은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빠르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남급북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남한은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2050년에도 초고령 사회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는 남소북다(南少北多))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감소의 진행 속도가 남한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가능인구의 '남소북다'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의 73.4%를 정점으로 2050년 54.4%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71.3%로 증가하다가 2025년 70.0%로 감소하여 2050년 65.3%로 낮아질 전망이다.

(남북한 인구 하락 속도는 남고북저(南高北低)) 남북한 인구성장률은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인구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고북저'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남한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하여 2024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14%, 2050년 -0.77%로 전망된다. 북한 인구성장률은 2033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2040년 -0.20%, 2050년 -0.27%로 전망된다.

3. 시사점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인구 구조를 향후 남한의 산업 인력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등으로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공업 분야에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공동체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감안한 다양한 북한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율 경쟁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교육 부문에 능력과 경쟁원리를 도입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자율 경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남북한 인구 구조 특성 >

남북한 인구의 세계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총인구는 2008년 현재 7,191만 명으로 세계 18위 · 남한 인구는 세계 25위이나, 남북한 통합시 17위인 터키 7,681만 명 다음을 차지 - 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를 이은 6위 ·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가운데는 일본 1억 2,708만 명의 56.6% 수준

남북한 인구 구조의 특성	
남녀 성비는 남남북녀 (南男北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비는 남한의 남초와 북한의 여초 현상인 '남남북녀' 현상 - 2008년 현재 남한의 성비가 100.9명이며, 북한의 성비는 97.2명 - 남북한 인구 통합시 성비는 99.7명이 되어 남녀 균형이 이루어짐
연령별 인구는 남로북청 (南老北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고, 북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로북청' 현상 - 남한은 유소년인구 19.1%, 생산가능인구 71.6%, 고령 인구 9.3% - 북한은 유소년인구 23.8%, 생산가능인구 67.6%, 고령 인구 8.5%
고령화 진전 속도 남급북완 (南急北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은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빠르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남급북완'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남한은 2018년 고령 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도달 - 북한은 2030~2035년 사이 고령사회 진입, 2050년에도 초고령 사회에는 진입하지 않을 전망
생산가능인구는 남소북다 (南少北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감소, 북한은 감소의 진행 속도가 남한에 비해 늦어지는 '남소북다'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의 73.4%를 정점으로 2050년 54.4%로 낮아질 전망 -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71.3%로 증가하다가 2025년 70.0%로 감소하여 2050년 65.3%로 낮아질 전망
인구 하락 속도는 남고북저 (南高北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인구성장률은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인구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고북저'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남한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하여 2024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14%, 2050년 -0.77%로 전망 - 북한 인구성장률은 2033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2040년 -0.20%, 2050년 -0.27%로 전망

시사점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인구 구조를 향후 남한의 산업 인력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등으로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공업 분야에 북한의 생산가능 인구를 활용 -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공동체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감안한 다양한 북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1. 문제 제기

○ 고령화의 심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의 연령층이 가장 젊은 층에 속하지만 21세기 중반이 되면 일본 다음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가 될 전망이며, 고령화의 진전 속도도 가장 빠름¹⁾
 - 2050년에는 인구의 1/3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며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50세 이상이 될 것
-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율의 증대를 통하여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총수요 측면과 노동 공급, 생산성 등 총 공급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전망
 - IMF는 1인당 실질 GDP가 생산가능인구 1% 증가 시에는 0.08%p 증가하는 반면, 고령인구 1% 증가 시에는 0.04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²⁾
 -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고령화로 인해 2011~2030년 중에는 3%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2030년대 이후에는 1~2%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³⁾
- 이와 같은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정책을 통한 노동투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노동인력의 유입, 경제활동참가율 확대, 정년 연장 등 다양한 노동투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5~1.3%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⁴⁾

○ 고령화 시대의 북한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는 미래 통일 한국의 인구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OECD,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07. p. 107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OECD, The Impact on demand, factor market and growth, 2005 자료 참조.

3) 김기호,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5년 자료 참조.

4) 김기호, 위의 자료 참조.

2. 남북한 인구의 세계 위상

○ 남북한 총인구는 2008년 현재 7,191만 명으로 세계 18위

- 2008년 현재 남한 인구는 약 4,861만 명, 북한 인구는 약 2,330만 명으로 추산되어 남북한 총인구는 약 7,191만 명에 달함
 -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추산
- 남한 인구는 2008년 현재 세계 25위이나, 남북한 인구 통합시 17위인 터키 7,681만 명의 다음으로 18위를 차지⁵⁾
 - 현재 세계 인구 18위는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으로 6,869만 명
 - OECD 가입국 가운데서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를 이은 6위⁶⁾
 -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가운데는 베트남 8,858만 명과 태국 6,600만 명 사이에 위치하며, 일본 1억 2,708만 명의 56.6% 수준

< 남북한 총인구 추계 >

(단위 : 만 명)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남한	3,224	3,528	3,812	4,081	4,287	4,509	4,701	4,814	4,830	4,846	4,861
북한	1,491	1,665	1,762	1,910	2,022	2,154	2,218	2,293	2,308	2,320	2,330

자료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09. p. 16 재구성

주 : 남한은 2006년 11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자료임.

북한은 북한의 1993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한 연앙(매년 7월 1일 기준) 인구임.

5) CIA, *The World Factbook 200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

6) OECD, *OECD FACTBOOK 2009*, p. 13.

3. 남북한 인구 구조의 차이점

○ (남북한 인구 구조의 5대 차이점) 남북한 인구 구조를 비교해보면, ① 남녀 인구별 성비는 '남남북녀(南男北女)', ② 연령별 인구 구조는 남로북청(南老北靑), ③ 고령화 진전 속도는 남급북완(南急北緩), ④ 생산가능인구는 남소북다(南少北多), ⑤ 남북한 인구 하락 속도는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현상이 나타남

○ 남녀 인구별 성비는 '남남북녀(南男北女)'

- 남북한 인구의 남녀 성비를 보면 남한의 남초 현상과 북한의 여초 현상인 '남남북녀' 현상이 나타남
 - 2008년 현재 남한의 남성 인구는 2,442만 명, 여성 인구는 2,419만 명으로 남녀 성비가 100.9명임
 - 북한의 남성 인구는 1,148만 명, 여성 인구는 1,182만 명으로 남녀 성비는 97.2명임
- 남북한 인구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남성 인구 3,590만 명, 여성 인구 3,600만 명으로 성비는 99.7명이 되어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 짐

< 남북한 성별인구 및 성비 >

(단위 : 천 명, 명)

	남한			북한			남북한		
	남	여	성비	남	여	성비	남	여	성비
1970	16,309	15,932	102.4	7,052	7,853	89.8	23,361	23,785	98.2
1980	19,236	18,888	101.8	8,478	9,143	92.7	27,714	28,031	98.9
1990	21,568	21,301	101.3	9,841	10,380	94.8	31,409	31,681	99.1
1995	22,705	22,388	101.4	10,519	11,024	95.4	33,224	33,412	99.4
2000	23,667	23,341	101.4	10,876	11,299	96.3	34,543	34,640	99.7
2005	24,191	23,947	101.0	11,282	11,646	96.9	35,473	35,593	99.7
2006	24,268	24,029	101.0	11,364	11,715	97.0	35,632	35,744	99.7
2007	24,344	24,112	101.0	11,429	11,771	97.1	35,773	35,883	99.7
2008	24,416	24,191	100.9	11,483	11,815	97.2	35,899	36,003	99.7

자료 :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2009. p. 18 재구성

주 :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 수

○ 연령별 인구 구조는 남로북청(南老北靑)

- 남북한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분석하면, 남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고 북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로북청' 현상이 나타남
- 남한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7.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 남한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19.1% 차지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중 71.6% 차지
- 남한은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9.3%를 차지하고 있음

< 남한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70	42.1	54.6	3.3
1980	33.9	62.2	3.9
1990	25.6	69.4	5.0
2000	20.8	71.8	7.3
2005	19.1	71.6	9.3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 북한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여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23.8% 차지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중 67.6% 차지
- 북한은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0%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현재 8.5%를 차지하고 있음

< 북한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70	39.8	58.8	1.4
1980	34.5	63.0	2.5
1990	26.2	69.2	4.7
2000	25.6	67.4	7.0
2005	23.8	67.6	8.5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7)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 사회(Aged Society, 14~20%),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분류

○ 고령화 진전 속도는 남급북완(南急北緩)

- 남북한의 고령화 진전 속도를 살펴보면, 남한은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빠르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남급북완'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남한의 0~14세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2030년 12.6%, 2050년 11.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2030년 64.2%, 2050년 54.4%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8년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10	16.2	72.8	11.0
2020	13.3	71.2	15.4
2030	12.6	64.2	23.2
2050	11.4	54.4	34.2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 북한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30년 18.7%, 2050년 16.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
 -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71.3%로 증가하다가 2025년 70.0%로 감소하고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050년 65.3%로 낮아질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5년 15.3%로 2030~2035년 사이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50년에도 18.1%로 초고령 사회에는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10	21.2	69.0	9.8
2020	19.0	71.3	9.7
2030	18.7	68.9	12.4
2050	16.6	65.3	18.1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 생산가능인구는 남소북다(南少北多)

-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감소의 진행 속도가 남한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가능인구의 '남소북다'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남한의 생산가능인구 : 2005년 현재 남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407만 명으로 총인구의 71.6% 수준
 - 그러나 2016년 총인구의 73.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총인구 4,915만 명의 64.2%인 3,157만 명, 2050년 총인구 4,408만 명의 54.4%인 2,398만 명 수준으로 계속 낮아질 전망

< 남한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50
0~14세	42.1	33.9	25.6	20.8	19.1	16.2	14.1	13.3	12.9	12.6	11.4
15~64세	54.6	62.2	69.4	71.8	71.6	72.8	73.0	71.2	67.8	64.2	54.4
65세+	3.3	3.9	5.0	7.3	9.3	11.0	13.0	15.4	19.3	23.2	34.2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 2005년 현재 북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591만 명으로 총인구 중 67.6% 수준
 - 2020년 총인구 2,480만 명의 71.3%인 1,768만 명로 증가하다가 2025년 총인구 2,513만 명의 70.0%인 1,759만 명으로 감소하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여 2050년 총인구 2,456만 명의 65.3%인 1,603만 명으로 낮아질 전망

< 북한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50
0~14세	39.8	34.5	26.2	25.6	23.8	21.2	19.4	19.0	19.1	18.7	16.6
15~64세	58.8	63.0	69.2	67.4	67.6	69.0	70.1	71.3	70.0	68.9	65.3
65세+	1.4	2.5	4.7	7.0	8.5	9.8	10.4	9.7	11.0	12.4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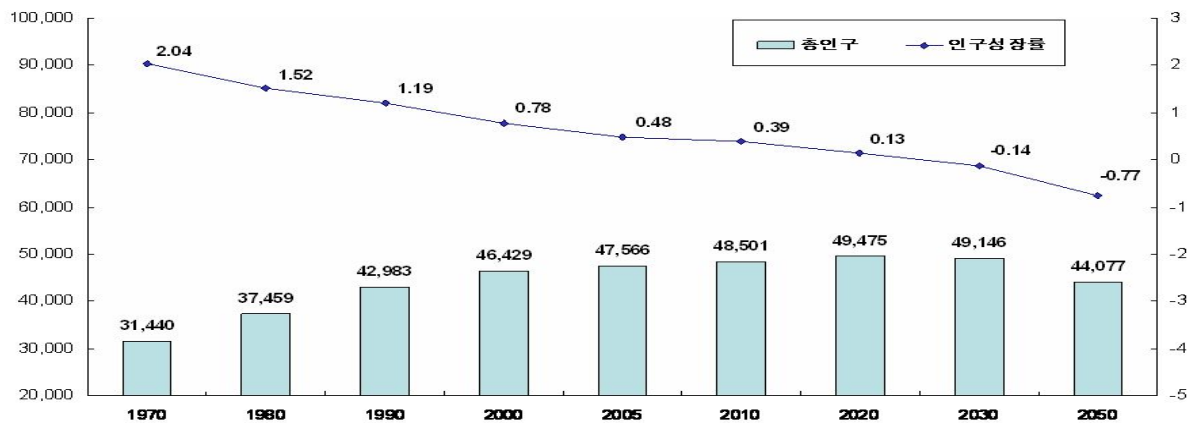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 남북한 인구 하락 속도는 남고북저(南高北低)

- 남북한 인구성장률은 모두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인구 하락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고북저' 현상이 나타날 전망
- 2005년 현재 남한 총인구는 4,757만 명으로 2023년 4,952만 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한 후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하여 2024년(-0.00%)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0.14%, 2050년 -0.77%로 전망됨

<남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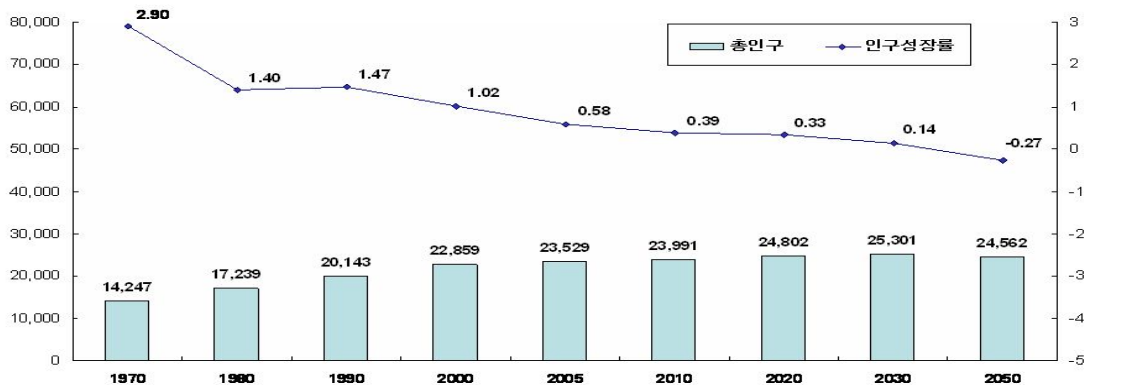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주 : 인구성장률은 5년 단위 계산한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율임.

- 2005년 현재 북한 총인구는 2,353만 명으로 2032년 2,532만 명으로 인구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2050년 2,456만 명에 이를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33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어 2040년 -0.20%, 2050년 -0.27%로 전망

<북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

(단위 : 천 명,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8 Revision, 2009.

4. 시사점

○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인구 구조를 향후 남한의 산업 인력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은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의 연령층이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만 21세기 중반이 되면 일본 다음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가 될 전망이며, 고령화의 진전 속도도 가장 빠름⁸⁾
- 북한은 상대적으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음
- 따라서 남한의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 활용 방안

-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등으로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공업 분야에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활용 : 북한 노동력에 대한 단순 인력 활용으로는 경공업 등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인력 활용이 가능
-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경제공동체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의 산업과 인구 구조를 감안한 다양한 북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북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경제 교육 프로그램 설계⁹⁾
 - 북한 주민들에게 자발성·능동성·창의성 등을 길러줄 수 있도록 남한 사회의 시장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발전시킨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율 경쟁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교육 부문에 능력과 경쟁원리를 도입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 해 정 선임연구원 (hjlee@hri.co.kr, 2072-6222)

8) OECD,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07. p. 107 참조.

9) 강일규,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통일경제』 2008 여름호. 현대경제연구원, p. 79 참조.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9	2.7
유로 지역	0.7	0.8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3.7	2.7	-4.4	-4.9	-10.3	-5.2	-13.7	6.0	-0.6	3.8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3월12일	3월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73	3.67	-0.06p
	엔/달러	90.76	96.65	92.93	90.68	90.45	-0.23¥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686	1.3608	-0.0078\$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612	10,779	167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665	10,744	7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93	3.76	-0.17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28.3	1,133.7	5.4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662.7	1,675.2	12.5p

주: 3월 18일 해외지표는 전일(3월 17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3월12일	3월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2.22	82.19	-0.03\$
	Dubai	36.45	71.85	78.06	77.87	77.67	-0.20\$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3.39	275.68	2.2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